"아파트 작은 도서관, 아이들 돌보는 공간 됐죠"

광주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숲속작은도서관 김진화 관장

선생님·복지사…경력도 다양한 엄마들 돌봄 선생님 변신 하루 초등생 등 20~30명 방문…수업 진행·식사 제공 등

내 아이를 위해 찾은 도서관에서 모두의 아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다. 광주 시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의 숲속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돌봄 주체 엄마들이 그 주인

2011년 개관한 숲속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출 발해 10여년 간 각종 사업에 선정되며 마을 돌봄 주 체로 거듭났다. 이곳은 하교를 한 아이들의 학원인 동시에 지역아동센터와 쉼터이기도 하다. 뿐만 아 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 목의 수업도 진행한다.

내 아이를 위해 도서관을 찾았던 엄마들은 어느 새 자원봉사자, 돌봄 주체 선생님으로 다양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이날 인터뷰를 맡은 김진화(42)숲속작은도서관 장 역시 "아이 셋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을 찾던 중 아 파트 단지 내 숲속작은도서관을 떠올렸다"고 한다.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도서관을 찾았다가 돌봄 주 체 선생님으로 변신한 그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15년간 유치원 선생님으로 활동한 전문가다.

김 관장은 "경력이 단절되기 전에는 직장에서 각 자 제 역할을 맡고 있던 이들"이라며 "사회복지사, 영어선생님까지 한 분야를 전공한 이들이 선생으로 나서 교육의 질이 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숲속작은도서관을 찾는 이들은 하루 20~30 명으로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다. 저학년이다 보니 도서관은 자연스레 학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역 할을 대신하고 있다.

사실 도서관이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적 잖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마을 안에 서 인정 받고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학 교도, 학원도, 지역아동센터도 아닌 도서관에 아이



숲속작은도서관 돌봄 주체 엄마들이 도서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

〈김진화 관장 제공〉

를 덜컥 맡기기 어려웠던 학부모의 염려때문이었 다. 아파트 단지 내 자리한 탓에 다른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약 2년간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구 청, 시청, 인권위에까지 민원을 넣는 주민들이 있었 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까지 받기도 했었죠. 매번 좋은 의도의 활동이라고 해명하기도 어느 때는 벅 찰 때가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엄마들은 돌봄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 하지 않았다. 머리를 맞대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숲속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알리는 데 힘을 모았다.

이들에게 도서관은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로써 홀로 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들이 잘하 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롯이 '내가 되는 경험'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보람을 준다는 것

김 관장은 앞으로도 숲속작은도서관과 같은 공간 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열린 문'의 기능을 담당하 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

동행재활요양병원 나눔 캠페인 물품 기탁

"추운 겨울, 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드시 고 건강하세요"

동행재활요양병원(원장 류기준)은 5일 오후 2시 북구청장실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물 품 기탁식'을 열고 김장김치와 라면을 북구 자원 관리팀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류기준 대표원장을 비롯해 문 인 북구청장, 김미혜 총괄이사, 이제은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약 7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500kg과 라면 50박스는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지난 3일 동행재 활요양병원 임직원 및 봉사원 15명이 직접 담가 더욱 의미가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

울나기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직접 배추와 양 념을 버무렸으며 이외 200포기는 동행재활요양 병원 내 환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유기준 대표원장은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북구청 자원 관리팀에 의뢰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게됐다"며 "요양병원 임직원 및 봉사원들과 함께 만든 김장 김치가 광주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 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동행재활요 양병원은 남구 서동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서 점심 배식 봉사에 나서고 단체 헌혈을 하는 등 지역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돌봄이웃들을 위한 후원물품 기탁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류기준 동행요양병원장, 김미혜 총괄이사, 관계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동행요양병원은 7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10kg 50박스, 라면 50박스를 후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김창숙 부띠끄, 사랑의열매에 1억 상당 의류 기탁



김창숙 부띠끄(회장 하봉화)는 전남지역 취약가구를 위해 전남사랑의열매(회장 노동일)에 1억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기탁했다. 〈전남사랑의열매 제공〉

김민지 광주시 보건연구사 '지방행정 달인' 수상

구사가 '지방행정의 달인' 으로 선정됐다.

5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소 속 김민지 보건 연구사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에서 보건위 생 분야 '감염병 대응 달인' 상을 받았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공 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일반행정, 사회 복지, 주민안전 등 9개 분야에서 탁월한 아이디어 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발전 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행정분야 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제도다.



응 최전선에서 24시간 신속 검사 체계를 구축한 공을 평 가받았다.

김 연구사는 "실험과 연구 를 좋아해 선택한 보건 연구 사로 재직하면서 신종인플루 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

속 진단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쌓일수 록 느끼고 있다"며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했던 도전이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와 기 쁘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가뭄 속 불조심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의 영향으로 매우 춥고 건조하겠다.

광주	구름많음	-3/9	보성	구름많음	-4/8
목포	구름많음	0/9	순천	구름많음	-3/9
여수	구름많음	1/9	영광	구름많음	-3/9
나주	구름많음	-5/9	진도	구름많음	-1/10
완도	구름많음	0/10	전주	눈온 뒤갬	-3/8
구례	구름많음	-3/8	군산	눈 온 뒤갬	-4/8
강진	구름많음	-4/10	남원	흐림	-6/6
해남	구름많음	-4/10	흑산도	맑음	6/10
장성	구름많음	-5/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선	오우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북)	1.0~2.0	1.5~2.5
	먼바다(남)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서)	1.0~2.0	1.0~2.0
	먼바다(동)	1.0~2.0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52	00:27
		18:29	13:11
	여수	01:27	08:00
	여구	14:02	20:04

◇ 생활지수

OE			
②	()		
감기	천식	미세먼지	
경고	위험	보통	

◇ 주간 날씨

7(수)	8(목)	9(금)
\Diamond	Ď	Ö
2/11	0/12	4/11
10(토)	11(일)	12(월)
$\overset{\circ}{\Box}$	Ö	Ö
0/10	1/8	-1/8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박용현(조선대명예교수)·이정원씨 아들 박성 우군, 구길수·김정숙씨 딸 구도은양 =12월 10일 오 후 2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하우스 오브 드메 르 1층 지절홀

▲김찬수·김은숙씨 아들 용석군, 신현국·박정연 씨 딸 민지양=12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광산 구하우스 오브 드메르 1층 지젤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 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 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 담=코로나19 등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 료상담 1670-9512.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 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 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 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 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 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 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 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 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 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 ~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 =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 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

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 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 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 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 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 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 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

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 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 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 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 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 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 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